

단서分析을 통한 패션트렌드 研究

李 英 宰

東明情報大學校 패션디자인學科 助教授

Research of Fashion Trend through Analysis on Cue

Young Jae Le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u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bstract

On the beginning of 21C, in which it is a facing problem that the expansive image of future in fashion should be proposed from the comprehensive analysis for the fashion tren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ends of capricious fashion are distinctly quantified by investigating the cue of fashion in each styles. Also, the systematic evaluation is carried out of analyzing photographs to which the four important fashion styles. In particular, this study takes the practical and numerical result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by statistical treatment as well a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that has been formerly used in the other stud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fashion trends expressed in important styles in the 1990s, and to formulate productive fashion of the future. In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four important fashions of neo-mods/jazz, neo-hippie/grunge, sportive-casual and techos/cyber-punk are grouped.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statistical data are sampled from Collection II of the 1990s A/W. It takes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and etc, by using the comprehensive tools for statistical treat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A/W fashion. According to the cues, there a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fashion in the 1990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In 'Neo-Mos/Jazz' style shows highly androgynous look, deep and strong tone, green/blue colors, natural fabric, stripe pattern, long hair style, and hided make-up.
- (2) 'Neo-hippie/gnenge' style shows highly folklore look, vivid tone purple colors, seethrough/knit fabric, natural /traditional pattern, decorative hair special make-up.
- (3) 'Sportive casuals' style shows highly sportive look, greish tone, white/grey colours, natural fabric, solid patten, bobbed hair, and natural make-up.
- (4) 'Techno/cyber punk style shows highly comocorps look, pale tone black colors avangard fabric, solid patten, punk/dyed hair special make-up.

I. 서론

1. 연구목적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의 단서(Cue)는 인상 형성 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수단이다. 이때, 여러 단서들 중 의복을 포함한 외모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¹⁾ 이러한 대인지각은 사물을 지각하는 대물지각(object perception)과는 달리 자기를 참조해서 타인을 평가하므로 개인에 따라 지각의 차이가 심하며, 지각 대상에게 원인 귀속을 할 수 있고, 지각대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관점에 의존하게된다. 그러나, 단서에 따른 대인지각을 객관적인 평가로 분석할 수 있다면 의복을 포함한 패션 현상의 과학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고, 패션 트렌드의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연구방법론 중 내용분석연구를 Berelson은 '커뮤니케이션의 현재적 내용을 객관적·체계적·수량적으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라 하였고, Cartwright는 '내용분석이란 coding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인간의 어떤 symbolic behavior을 객관적·수량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 하였다.²⁾ 따라서 내용분석법을 활용한 단서 분석을 통해 패션 트렌드를 객관적·수량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동안 정성적인 연구방법에 의존해왔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통계적 처리를 거친 정량적 연구방법으로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복식 단서들을 실증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정량화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로는 복식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 질적(qualitative) 연구와 양적(quantitative) 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한 논문이 있다.³⁾ 또한, 복식의 양면 감정과 복식 단서를 유목으로 선정하여 내용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⁴⁾ 즉, 1990년대에 grouping된 유행 패션별 복식 단서의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패션 디자인의 구체적 현상을 실증적으로 수량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다양하고 개성적인 패션이 우리의 실생활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21세기를 맞이하여, 현대 패션 디자인의 구체적인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미래 패션의

보다 더 정확한 예측과 결과의 활용을 통해 패션산업 발전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아래의 연구 문제를 수행하였다.

- 1) 1990년대 유행 패션별 복식 단서의 특징을 도출한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연구 조사의 대상으로 사진자료를 사용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한 사진 자료 수집은 비교적 대중적인 패션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 프레타 포르테(prêt-à-proter) 패션쇼가 실려있는 'Collections II' 지를 선정하였다. 프레타 포르테 패션쇼는 1년에 Spring/Summer(S/S)와 Autumn/Winter(A/W) 두 번에 걸쳐 세계의 여러 패션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있는 잡지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일본 GAP PRESS에서 발간하고 있는 'Collections II'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단행본은 파리, 런던의 프레타 포르테 패션쇼만을 실고 있다. 색채와 소재에서 S/S와 A/W의 차이를 고려하여, A/W만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사진은 컬렉션 각 권에서 60매를 선정하였다. 선정 방법은 전체 쪽수를 잡지 한 권당 필요한 사진 숫자인 60으로 나누어 5~6쪽마다 추출하였다. 이때, 본 연구자와 4인의 의류관련학과 교수가 분석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하여 1990~1999년까지 9권의 컬렉션지에서 각 권당 60매를 선정하여 모두 540매의 전체 복식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컬러 사진을 추출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2 조사기간

조사 기간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10년간으로 하였다.

3. 조사내용

1990년대 유행 패션의 단서별 유목은 본 연구자와 4인의 대학 의류학과 강사 및 교수의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는데, 단서는 룩, 색상, 색채의 톤, 시각적으로 분류한 소재, 직물 문양, 헤어스타일 유형, 메이크업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정성적 분석은 단행본, 패션 정보지, 패션 논평 등의 문헌 중심 연구로 정성적 분석을 통해 1990년대 패션의 흐름을 고찰하였고, 내용분석을 위한 유목의 선정을 위해 1990년대 유행 패션 스타일별로 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내용 분석으로써, 1990년대별 유행 패션별 복식 단서를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프로그램으로 빈도(Frequency), 백분율(Percentage)의 수량적 고찰을 하였다. 또한, 유행 패션별 복식 단서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정(χ^2 -test)을 실시하였다.

5. 용어정의

본 연구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서

패션디자이너의 선, 형태, 색채, 소재와 직물문양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형태를 룩, 헤어스타일 유형, 메이크업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색채는 색상과 색의 톤으로 나누었고, 소재는 시각적 느낌으로 하였다.

2) 스타일

형식·양식을 일컬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소멸하는 유행의 복식이 장기간에 걸쳐 정착된 풍속으로서 일반화되었을 때, 그 복식의 디자인상의 특징을 말한다.

3) 룩

외관·스타일 전체의 모양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정성적 연구 결과

1990년대 패션의 흐름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의 경제불황에 따라 basic style을 다양하게 코디해서 입을 수 있는 캐주얼웨어가 활성화되어 유행 패션으로 정착되었다. 복합소재, 신가공 소재 등의 하이테크 소재의 진전과 더불어, 에스닉, 스쿨 걸 룩이 공존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엘레강스 페미닌 스타일의 body conscious 실루엣이 강세를 보였고, 후반기에는 소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의복의 경량화와 소프트화가 가속되고 상호작용(super interaction)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⁵⁾ 또한, 트렌드와 반(counter) 트렌드가 공존하였으며,⁶⁾ 자연과 본성으로의 회귀, 컴퓨터 통신의 생활화, 스포츠/레저/타운캐주얼의 세분화,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분방함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위의 자료로부터 1990년대 유행 패션으로 자연 취향의 히피 스타일, 사이버 스타일,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 펑크나 유니섹스 스타일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얻은 결과와 삼성 패션 트렌드의 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⁷⁾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콜렉션지 논평⁸⁾과 삼성패션연구소의 '패션 포럼'¹⁰⁾, 'Message From the Street'¹¹⁾에 실려 있는 분석 내용을 참고로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유행 패션을 네오모즈/재즈(Neo-Mods/Jazz), 네오히피/그런지(Neo-Hippie/Grunge), 스포티브/캐주얼(Sportive/Casual), 테크노/사이버펑크(Techno/Cyber Punk)의 네 그룹으로 grouping할 수 있었다.¹²⁾

2. 정량적 연구 결과

1) 1990년대 A/W 유행 패션의 추이

시기별 A/W 유행 패션의 변화는 <표 1>과 같다. 1990년대부터 1992년까지를 살펴보면,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이 42.7%로 가장 많았고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이 32.8%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이 44.4%로 가장 높게

<표 1> 시기별 A/W 유행 패션의 변화

단위: 빈도 (%)

연 대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총 계
1990~1992	23(25.6)	64(32.8)	40(30.5)	53(42.7)	180(33.3)
1993~1995	40(44.4)	80(41.0)	32(24.4)	28(22.6)	180(33.3)
1996~1999	27(30.0)	51(26.1)	59(45.0)	43(34.7)	180(33.3)
계	90(16.7)	195(36.1)	131(24.3)	124(23.0)	540(100.0)

나타났고, 근소한 차이로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이 41.0%를 나타내 전반기에 이어 꾸준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스포티브 캐주얼이 45.0%로 가장 높이 나타나 초·중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로 34.7%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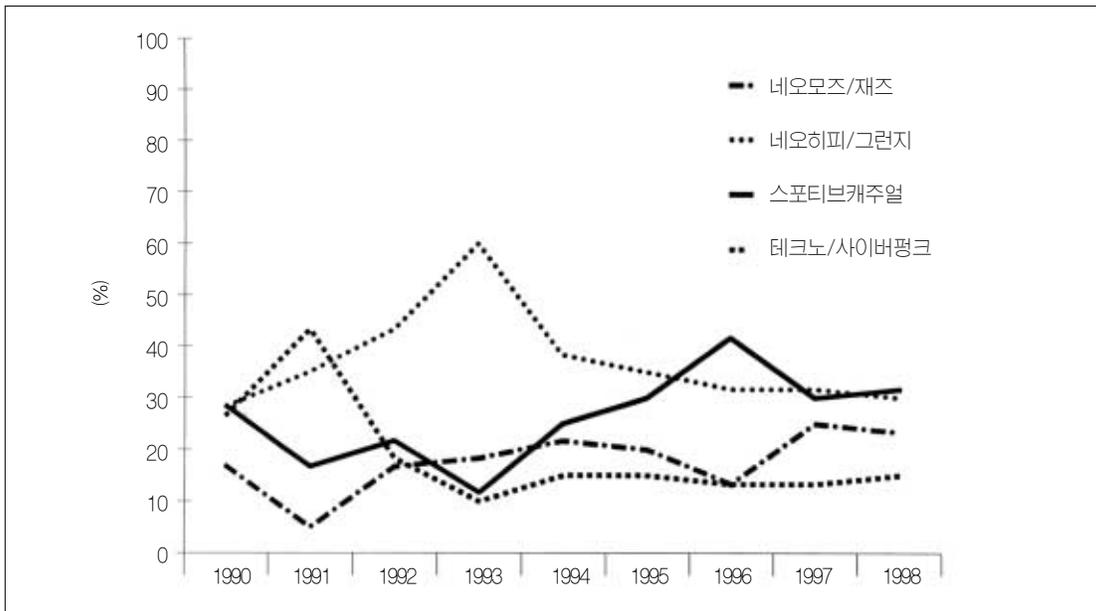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에는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이, 중반에는 네오모즈/재즈 및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이, 후반에는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이 가장 유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네오히피/그런지 스타일은 1993년을 정점으로 크게 유행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으나 1990년대 10년간 가장 유행한 스타일은 네오히피/그런지 스타

일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환경보호 운동의 영향으로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선호하게되어 이콜로지룩에 가까운 네오히피/그런지가 유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티브 캐주얼로 중 후반 이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류의 문화적, 경제적 진보가 생활의 풍요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가와 레저웨어의 활성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즉, 스포츠의 대중화와 보급에 따른 스포츠 웨어의 패션화가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은 1990년대 초기에 높게 나타났다가 중·후반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보 통신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



<그림 1> A/W 유행 패션의 추이

어 사이버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관심이 테크노/사이버 스타일의 전위성으로 표출되어 패션에 나타났으나 컬렉션에서 보편화되어 정착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교육의 확대로 여성복의 남성복화, 중성화가 꾸준히 보여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1) 1990년대 A/W 유행 패션별 복식 단서 분석

(1) 룩

1990년대 A/W 유행 패션별 룩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768.0$).

프레피룩이 네오히피/그린지와 테크노/사이버 핑크에서 관찰빈도가 2와 0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관찰빈도가 5이하가 전체의 20%를 넘어 카이검증값의 신뢰도가 떨어져 룩의 유목을 비슷한 것끼리 통합하려 하였으나, 더 이상 룩의 유목을 통합할 수 없어 9가지 유목로 분석하였다.

각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에서는 앤드로지너스룩이 89.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이 남성복 또는 중성의 요소를 많이 함축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오히피/그린지는 포클로어룩이 8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78.2%인 푸어룩, 73.2%인 로맨틱

<표 2> A/W 유행 패션별 룩의 차이

단위: 빈도 (%)

룩 \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핑크	계
섹시 룩	1 (15) <12>	28 (406) <145>	13 (188) <11.0>	27 (391) <218>	69 (1000) <133>
푸어 룩	0 (00) <00>	43 (782) <223>	9 (164) <68>	3 (55) <24>	55 (1000) <106>
로맨틱 룩	3 (54) <35>	41 (732) <212>	8 (143) <68>	4 (71) <32>	56 (1000) <108>
스포티브룩	4 (48) <47>	11 (133) <57>	58 (699) <49.1>	10 (121) <81>	83 (1000) <160>
앤드로지너스룩	73 (890) <85.9>	2 (14) <1.0>	6 (73) <5.1>	1 (12) <08>	82 (1000) <158>
우주복 룩	0 (00) <00>	1 (18) <05>	13 (232) <11.0>	42 (750) <339>	56 (1000) <108>
핑크 룩	1 (18) <12>	13 (228) <67>	6 (105) <5.1>	37 (649) <298>	57 (1000) <11.0>
포클로어룩	3 (75) <35>	54 (87.1) <280>	5 (8.1) <42>	0 (00) <00>	62 (1000) <11.9>
계	90 (173) <100.0>	193 (37.1) <100.0>	118 (22.7) <100.0>	124 (238) <100.0>	520 (1000) <100.0>

$\chi^2 = 768.0^{**}$

**P<.01

록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는 스포티브록이 69.9%로 높게 나타났다.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우주복록이 7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핑크록이 64.9%이었다. 미래 지향적인 무드와 함께 1960년대부터 나타났던 우주복록은 1990년대에는 컴퓨터 그래픽 등의 첨단 과학을 활용한 사이버 우주복록으로 보다 전위적인 분위기가 창조되어졌다.

록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색시록은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에서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푸어록, 로맨틱록, 포클로어록은 네오히피/그린지에서 각각 22.3%, 21.2%, 28.0%로 높게 나타났다. 앤드로지너스록은 네오모즈/재즈에서 85.9%를 나타내 가장 높았다. 우주복록과 핑크록은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 각각 33.9%, 29.8%로 높게 나타났다. 스포티브록은 스포티브 캐주얼에서 49.1%로 높게 나타났다.

(2) 색채

색채는 색상과 색의 톤으로 세분화시켜 분석하였다. 색상의 유목 선정시 한국공업규격(KS A 0011-1987)의

유채색, 무채색의 기본 색명에 따라 분류하였다. 색의 명도와 채도를 나타내주는 색채의 톤도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해 규정된 계통 색명에 따라 분류, 분석하여 색채 분석의 정확도를 기하였다. 계통 색명 분류는 모든 색의 영역을 포괄한 분류방법이므로 색의 조사나 통계처리에 유효한 방법이다.

색상은 카이(Chi) 검증시 그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차 통계 분석결과 관찰 빈도가 5 이하로 나왔던 노랑색과 연두색을 내용분석에서 제외시켰고, 빨강색과 주황색은 red/orange로, 녹색과 청록색과 파랑색은 green/blue로, 남색과 보라색과 자주색은 purple로, 흰색과 회색은 white/grey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색의 톤도, 아주 연한과 연한을 연한으로, 밝은과 밝은 회는 밝은으로, 회와 어두운 회와 칙칙한 회/칙칙한으로, 어두운과 짙은을 어두운/짙은으로 묶었으며, 해맑은은 관찰 빈도가 5이하로 나타나 제외시켰다.

1990년대 A/W 유행 패션별 색상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41.80$) 색의 톤도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표 3> A/W 유행 패션별 색상의 차이

단위: 빈도 (%)

색상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린지	스포츠비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계
red/orange		22 (15.4) <27.2>	58 (40.6) <34.9>	44 (30.8) <33.6>	19 (13.3) <15.3>	143 (100.0) <29.5>
green/blue		18 (20.5) <22.2>	26 (29.5) <15.7>	22 (25.0) <16.8>	22 (25.0) <17.7>	88 (100.0) <18.2>
purple		16 (17.8) <8.6>	42 (46.7) <25.3>	18 (20.0) <13.7>	14 (15.6) <11.3>	90 (100.0) <18.6>
white/grey		7 (11.1) <8.6>	13 (20.6) <7.8>	20 (31.7) <15.3>	23 (36.5) <18.5>	63 (100.0) <13.0>
black		18 (18.0) <22.2>	27 (27.0) <16.3>	17 (17.0) <13.0>	38 (38.0) <30.6>	100 (100.0) <20.7>
계		81 (16.7) <100.0>	166 (34.3) <100.0>	131 (24.3) <100.0>	124 (23.0) <100.0>	484 (100.0) <100.0>

$\chi^2 = 41.80^{***}$

***P<.001

었다($\chi^2=34.85$).

각 유행 패션별로 살펴보면,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에서는 green/blue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black이 18.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툰에서 어두운/질은이 26.8%로 가장 많고, 회/칙칙한이 20.3%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로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에서 어두운/질은 green/blue, 회/칙칙한 green/blue, black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네오히피/그런지에서는 purple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red/orange가 40.6%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색의 툰에서는 순(純)이 55.1%, 밝은이 43.7%의 순서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밝은과 순에 대해서 purple과 red/orange가 높게 나타나,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상이 네오히피/그런지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스포티브 캐주얼에 있어서 white/grey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red/orange로서 30.8%이었다. 툰을 살펴보면, 회/칙칙한이 28.6%, 어두운/질은이 25.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채도가 낮은 색상이

스포티브 캐주얼에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black이 38.0%, white/grey가 36.5%로 높게 나타나, 무채색 계열이 높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툰에서는 연한이 32.0%로 가장 많고, 순이 22.4%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회색은 아주 연한 회색이 높게 사용되었다.

색채별로 살펴보면, red/orange는 네오히피/그런지에서 34.9%로 높게 나타났고, green/blue는 네오모즈/재즈에서 22.2%로 가장 높았다. purple은 네오히피/그런지에서 25.3%를 나타내 제일 높았다. white/grey와 black은 테크노/사이버 펑크에서 각각 18.5%와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툰은 연한이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밝은은 네오히피/그런지에서 16.3%를 나타내 다른 스타일에 비해 높았다. 회/칙칙한은 네오모즈/재즈에서 30.3%로 가장 높았고 어두운/질은은 네오모즈/재즈에서 16.8%로 높게 나타났다. 순은 14.2%를 보여준 네오히피/그런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A/W 유행 패션별 색의 툰의 차이

단위: 빈도 (%)

색상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계
연한		30 (135) <33.7>	66 (297) <34.7>	55 (248) <42.3>	71 (320) <58.2>	222 (1000) <41.8>
밝은		12 (169) <13.5>	31 (437) <16.3>	17 (239) <13.1>	11 (155) <9.0>	71 (1000) <13.4>
회/칙칙한		27 (203) <30.3>	45 (338) <23.7>	38 (286) <29.2>	23 (173) <18.8>	133 (1000) <25.1>
어두운/질은		15 (268) <16.8>	21 (375) <11.0>	14 (25.0) <10.8>	6 (10.7) <4.9>	56 (1000) <10.5>
순		5 (102) <5.6>	27 (55.1) <14.2>	6 (122) <4.6>	11 (22.4) <9.0>	49 (1000) <9.2>
계		89 (168) <100.0>	190 (358) <100.0>	130 (245) <100.0>	122 (230) <100.0>	531 (1000) <100.0>

$\chi^2 = 34.85^{***}$

***P<.01

(3) 소재

소재는 사진자료의 분석이라는 연구 제한점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분류하였다. 천연직물 느낌은 면, 마, 모직물을 포함하였으며, 견직물은 천연직물이지만 광택이 시각적으로 우선되어진다고 사료되어 합성직물과 함께 광택성 소재로 분류하였다. 최근 유행하고 메탈릭 소재는 광택이 강렬하나 피혁, 비닐과 함께 전위성 소재로 함께 묶었으며 본 연구에서 광택성 소재는 견직물과 합성직물에서 느낄 수 있는 은은한 광택을 말한다.

1990년대 A/W 유행 패션별 소재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169.61$)

네오모즈/재즈에서는 모직물을 포함시켰던 천연직물 느낌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견직물과 합성섬유의 광택성 소재가 16.0%로 나타났다.

네오히피/그런지에서는 비치스/니트 소재가 53.1%, 광택성 소재가 46.8%의 순서로 나타났다. 씨스루(See-through) 소재와 니트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는 천연직물 느낌이 30.7%로 가장 많았고, 비치스/니트 소재가 27.3%로 나타났다.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전위성 소재가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위성 소재의 사용은 다른 유행 패션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을 결정짓는 특징 중 소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의 색채 분석 결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검정색이 보여지고 있고, 메이크업 유형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이 보여지고 있다.

각 소재별로 살펴보면, 천연직물 느낌은 57.8%를 나타낸 네오모즈/재즈에서, 견직물, 합성섬유 등 은은한 광택의 직물을 포함하였던 광택성 소재에서는 네오히피/그런지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메탈릭 소재, 피혁, 비닐 등의 전위성 소재는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 47.6%를 나타내 가장 높았다. 비치스/니트 소재는 네오히피/그런지가 34.7%로 높게 나타났다.

(4) 직물 문양

1990년대 A/W 유행 패션별 직물 문양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71.62$).

각각의 유행 패션별로 살펴보면, 네오모즈/재즈에서는 모직물의 스트라이프 등 기하학문양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네오히피/그런지에서는 자연/전통 문양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추상문양이

<표 5> A/W 유행 패션별 소재의 차이

단위: 빈도 (%)

소재 \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계
천연직물 느낌	52 (31.3) <57.8>	46 (27.7) <23.6>	51 (30.7) <38.9>	17 (10.2) <13.7>	166 (100.0) <30.7>
광택성 소재	25 (16.0) <27.8>	73 (46.8) <37.4>	31 (19.9) <23.7>	27 (17.3) <21.8>	156 (100.0) <28.9>
전위성 소재	9 (10.0) <10.0>	8 (8.9) <4.1>	14 (15.6) <10.7>	59 (65.6) <47.6>	90 (100.0) <16.7>
비치스/니트 소재	4 (3.1) <4.4>	68 (53.1) <34.9>	35 (27.3) <26.7>	21 (16.4) <16.9>	128 (100.0) <23.7>
계	90 (16.7) <100.0>	195 (36.1) <100.0>	131 (24.3) <100.0>	124 (23.0) <100.0>	540 (100.0) <100.0>

$\chi^2 = 169.61^{***}$

***P<.001

<표 6> A/W 유행 패션별 직물 문양의 차이

단위: 빈도 (%)

문양 \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린지	스포츠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펑크	계
무문	46 (18.9) <51.1>	57 (23.5) <29.8>	66 (27.2) <52.8>	74 (30.5) <61.7>	243 (100.0) <46.2>
기하학문양	31 (25.0) <34.4>	37 (29.8) <19.5>	31 (25.0) <24.8>	25 (20.2) <20.8>	124 (100.0) <23.6>
자연/전통문양	8 (9.9) <8.9>	51 (63.0) <26.7>	16 (19.8) <12.8>	6 (7.4) <5.0>	81 (100.0) <15.4>
추상문양	5 (6.4) <5.6>	46 (59.0) <24.1>	12 (15.4) <9.6>	15 (19.2) <12.5>	78 (100.0) <14.8>
계	90 (17.1) <100.0>	191 (36.3) <100.0>	125 (23.8) <100.0>	120 (22.8) <100.0>	540 (100.0) <100.0>

$\chi^2 = 71.62^{***}$

***P(.001)

59.0%의 순서로 나타났다.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는 무문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도 무문이 30.5%로 가장 높게 보여지고 있다.

직물문양별로 살펴보면, 무문은 테크노/사이버펑크가 61.7%, 기하학문양에서는 네오모즈/재즈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전통문양과 추상문양에서는 네오히피/그린지가 각각 26.7%,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헤어스타일 유형

1990년대 A/W 유행 패션별 헤어스타일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43.28$).

헤어스타일 유형의 유목 중 스킨헤드가 네오히피/그린지와 스포티브 캐주얼에서 각각 2회씩 나타났으며,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3회, 네오모즈/재즈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 들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각 유행 패션별로 살펴보면, 네오모즈/재즈에서는 긴 머리가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발머리가 22.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의복의 남성 스타일 연출에 대하여 머리유형에서는 반대로 여성성 표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네오히피/그린지에서는 히피풍이나 집시풍에서 모자가 41.2%, 머리 장식이 46.9%로 나타나 역할이 큼을 감안하면 스타일 연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스포츠브 캐주얼은 단발머리가 31.1%로 가장 많고, 모자가 29.4%로 나타나 모자의 착용이 스포티브 캐주얼 차림에서 보편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펑크/염색머리가 42.0%로 가장 많아,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 연출에 있어서 선호하는 머리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긴 머리가 25.0%, 혼합형이 21.7%의 순서로 나타났다.

각 헤어스타일별로 살펴보면, 긴 머리, 단발머리, 짧은 커트머리가 네오모즈/재즈에서 각각 18.9%, 11.1%, 1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펑크/염색머리는 28.1%의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 모자는 19.4%의 스포티브 캐주얼에서 높게 나타났다. 머리장식은 19.7%로 네오모즈/히피에서 가장 높게 보여졌으며, 혼합형은 27.1%를 나타낸 스포티브 캐주얼에서 가장 높았다.

(6) 메이크업 유형

1990년대 A/W 유행 패션별 메이크업 유형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50.60$).

<표 7> A/W 유행 패션별 헤어스타일 유형의 차이

단위: 빈도 (%)

헤어스타일 \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펄크	계
긴 머리	17 (25.0) <18.9>	25 (36.8) <13.0>	9 (13.2) <7.0>	17 (25.0) <14.0>	68 (100.0) <12.8>
단발머리	10 (22.2) <11.1>	12 (26.7) <6.2>	14 (31.1) <10.9>	9 (20.0) <7.4>	45 (100.0) <8.5>
짧은 커트머리	11 (20.8) <12.2>	17 (32.1) <8.8>	15 (28.3) <11.6>	10 (18.9) <8.3>	53 (100.0) <9.9>
핑크/염색머리	8 (9.9) <8.9>	23 (28.4) <11.9>	16 (19.8) <12.4>	34 (42.0) <28.1>	81 (100.0) <15.2>
모 자	17 (20.0) <18.9>	35 (41.2) <18.1>	25 (29.4) <19.4>	8 (9.4) <6.6>	85 (100.0) <15.9>
머리장식	11 (13.6) <12.2>	38 (46.9) <19.7>	15 (18.5) <11.6>	17 (21.0) <14.0>	81 (100.0) <15.2>
혼 합 형	16 (13.3) <17.8>	43 (35.8) <22.3>	35 (29.2) <27.1>	26 (21.7) <21.5>	120 (100.0) <22.5>
계	90 (16.9) <100.0>	193 (36.2) <100.0>	129 (24.2) <100.0>	121 (22.7) <100.0>	533 (100.0) <100.0>

$$\chi^2 = 43.28^{**}$$

**P<.01

<표 8> A/W 유행 패션별 메이크업 유형의 차이

단위: 빈도 (%)

메이크업 \ 스타일	네오모즈/재즈	네오히피/그런지	스포티브 캐주얼	테크노/사이버펄크	계
특수 메이크업	9 (9.2) <10.0>	42 (42.9) <21.5>	13 (13.3) <9.9>	34 (34.7) <27.4>	98 (100.0) <18.2>
질은 메이크업	19 (13.3) <21.1>	47 (32.9) <24.1>	32 (22.4) <24.4>	45 (31.5) <36.3>	143 (100.0) <26.5>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51 (19.0) <56.7>	103 (38.3) <52.8>	79 (29.4) <60.3>	36 (13.4) <29.0>	269 (100.0) <49.8>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	11 (37.9) <12.2>	3 (10.3) <1.5>	7 (24.1) <5.3>	9 (30.0) <7.3>	30 (100.0) <5.6>
계	90 (16.7) <100.0>	195 (36.1) <100.0>	131 (24.3) <100.0>	124 (23.0) <100.0>	540 (100.0) <100.0>

$$\chi^2 = 50.60^{***}$$

***P<.001

네오모즈/재즈는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이 37.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선글라스를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에 포함시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네오히피/그린지에서는 부분 색조 메이크업을 포함하였던 특수 메이크업이 42.9%로 가장 높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38.3%, 짙은 메이크업이 32.9%의 순서로 보여지고 있다.

스포츠비 캐주얼에서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29.4%,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이 24.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로써 스포티브 캐주얼에서는 메이크업의 비중이 다른 유행 패션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는 부분 색조 메이크업을 포함하고 있는 특수 메이크업이 34.7%, 짙은 메이크업이 31.5%,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이 30.0%의 순서로 나타났다.

1990년대 A/W 유행 패션의 메이크업 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연스런 메이크업이 49.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컬렉션에서 복식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모델의 얼굴 부분에 강조를 피하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각 메이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 메이크업과 짙은 메이크업은 테크노/사이버펑크에서 각각 27.4%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은 스포티브 캐주얼에서 60.3%로 높게 나타났고,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은 네오모즈/재즈가 12.2%를 나타내 가장 높았다.

IV. 결론

현대 사회의 패션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다원화되고, 그 변화의 속도 또한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복식미학 분야나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되어왔던 문헌연구 중심의 정성적 연구방법은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되어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해야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프레타포르테(Prêt-à-porter) 컬렉션을 통해 발표된 패션 디자인을 내용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당대에 유행한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규명하고, 패션연구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며, 미래의 패션디자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제시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즉, 실증 사진 자료의 통계처리를 거친 내용분석으로, 정량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A/W 유행 패션별 복식 단서 각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네오모즈/재즈 스타일에 대해서는 룩은 '앤드로지 너스룩' 이, 색상은 'green/blue' 가, 색의 톤은 '어두운/짙은' 이, 소재는 '천연직물 느낌' 이, 직물문양은 '기하학문양' 이,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 가, 메이크업은 '얼굴을 감춘 메이크업' 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네오히피/그린지 스타일에 대해서는 룩은 '포클로 어룩' 이, 색상은 'purple' 이, 색의 톤은 '순(純)' 이, 소재는 '비치/니트 소재' , 직물문양은 '자연/전통문양' 이, 헤어스타일은 '머리 장식' 이, 메이크업은 '특수 메이크업' 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스포티브 캐주얼 스타일에 대해서는 룩은 '스포티브룩' 이, 색상은 'white/grey' 가, 색의 톤은 '회/칙칙한' 이, 소재는 '천연직물 느낌' 이, 직물문양은 '무문' 이, 헤어스타일은 '단발머리' 가,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 (4) 테크노/사이버펑크 스타일에 대해서는 룩은 '우주복룩' 이, 색상은 'black' 이, 색의 톤은 '연한' 이, 소재는 '전위성 소재' 가, 직물문양은 '무문' 이, 헤어스타일은 '펑크/염색머리' 가, '특수 메이크업' 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1990년대 A/W 패션 경향을 복식 단서의 내용분석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이로써, 시대의 조류에 민감하고 변화무쌍한 패션 트렌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의 니드(need)에 부합하기 위한 미래 패션 디자인 창출에 유용한 자료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유목 선정과 사진 자료 선정

시 오류 생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분석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점과 유목 선정 시 카이(CH)검증을 위해 관찰 빈도가 5 이하인 유목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거나, 묶을 수 없었던 것을 삭제하여 세분화된 분석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한편, 앞으로의 연구에서 패션 디자인 및 트렌드 연구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고, 보다 다양한 결과 해석을 유출함으로써 패션 연구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미래의 패션 디자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제언해 본다.

참고문헌

1.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95, p. 39.
2. 차배근, 사회과학연구방법, 세영사, 1990, p. 138.
3. 김혜경,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Historic Clothing and Textile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한국의류학회지 Vol. 22, No. 7 1998, pp. 952-962.
4. 김영옥, 현대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5. 삼성패션연구소, 「Samsung Fashion Trend, 1998 Autumn/Winter, '90년대 패션의 흐름」, 1998, p. 21.
6. 삼성패션연구소, 「Samsung Fashion Trend, For Women Spring Summer, 'Trend와 Counter Trend의 공존」, 1999, p. 26.
7. 삼성패션연구소, 앞글, 1998, pp. 22-26.
8. 삼성패션연구소, 앞글, 1999, p. 26.
9. Junko Ouchi, Collections, Gap Japan Co.,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Ltd.
10. 삼성패션연구소, Fashion Form, 9./Vol. 51, 1997, p. 22
11. 삼성패션연구소, Message from the Street, 1995.
12. 이영재·박민여,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S/S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0. 4. 15
13. 이명희, 패션쇼의 트렌드 반영성에 관한 연구 -실루엣, 디테일, 색상, 패션 이미지 등 4가지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 학회지 제3권 제4호 1999년 2월, p. 147.
14. Barzun, J. and H. F. Graff, 'The Modern Reseacher',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5.
15. Fogel, Robert W., 'The Limits of Quantitative Methods in History', Conference on Mathematics in the Social Science, Carbondale, April 21-23.
16. Holsti Ore R.,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Mass.: Addison Wesley.